

강정정수장 운영 중단... 시민 불안 여전

어제부터 대체 급수 속 유충사태 후유증 계속 "수자원관리본부 시설 관리 부실 감사 이뤄져야"

서귀포지역 '수돗물 유충' 사태로 11월부터 동지역에 물을 공급하던 강정정수장에 대한 한시적 운영 중단과 함께 대체급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 불안은 여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정수장 관리 소홀에 따른 제주도수자원본부에 대한 특별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1일 오후 6시부터 서귀포시 동지역에 대한 전면 대체 급수를 실시해 유충이 없는 물 공급을 시작했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수도지원센터와 협력해 어승생·회수·도평·남원정수장의 여유 물량을 확보하고 비상연계 관로 설치

를 통해 대체 공급을 본격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대체 공급량은 강정정수장이 공급했던 2만4000세대에 대한 1일 2만1000t 규모다.

도는 당분간 강정정수장 계통 배수 관로에 남아있던 유충이 수돗물에 섞여 배출될 가능성이 있어 공급관로의 강제 배수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대체 공급으로 탁수나 수압 약화가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대체 공급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할 실정이다.

펜션을 운영 중인 시민 H(동흥동·61)씨는 "평생 수돗물을 믿고 마셔왔는데 이번 사태로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와 공급한다고 해도 물을 마시는 자체가 찜찜하다"며 "강정정수장에 대한 시설관리 소홀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고, 그 불편은 그대로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의 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가뜰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 아예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라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고 토로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강정정수장 여과지(池)의 일부 합몰, 여과사(沙) 교체 및 노후화 시설 방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9개 동지역의 소화전 33개소 전부에서 해

당 유충이 발견됐다. 강정전에서 취수한 원수가 여과지~강정정수장~삼매배수지를 거쳐 수돗물로 서귀포시의 대부분 동지역에 공급된 상태로 당분간 물 사용시 시민과 관광객들의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도는 "강정정수장 한시적 운영 중단기간 동안 수돗물 유충 발생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장·단기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11월 말까지 기존시설 부분 개선·보수와 함께 정수처리시설 개선방안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진단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 기준,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한 민원은 100건(유충 발견 69, 미발견 23, 조사중 8)이다.

백규탁기자 haru@halla.com

정예소득 작목단지에서 특화품목 육성

2013년부터 9개 단지 조성 지역농협 생산·유통 나서

제주도가 수입 개방과 온난화에 대응하고 감귤·월동채소 위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 사업'이 8년째 이어지며 재배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시는 2013년부터 시작한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16농가가 27.7ha에서 9개 작목단지를 조성해 바나나·체리·패션푸르츠·애플수박 등을 재배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160억원이 투입됐다.

정예소득 작목단지는 지역농협이 10농가 안팎의 일정 규모가 참여하는 특제품목의 작목단지 조성·운영 계획을 수립하면 행정에서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비닐하우스와 물탱크 시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애월·환경·고산·함덕·구좌·김녕·하귀농협이 참여했다.

올해는 고산농협과 하귀농협이 참여해 2곳에서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해 24농가(6.2ha)에서 블랙사파이어와 샤인머스켓을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은 지역농협이 사업자로 계획적인 생산과 유통처리를 담당하면서 적정 생산을 통한 가격지지와 농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도만의 특색있는 작물 발굴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정예소득 작목단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서귀포칠십리축제 프로그램 공모하세요"

오는 30일까지 2개 부문 접수

서귀포시는 오는 30일까지 '2021 서귀포칠십리축제 프로그램'을 전국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서귀포지역 대표 축제인 서귀포 칠십리축제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전국 공모는 인택트·참여 등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부문별 1인 1건으로 제한하며, 전국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축제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인택트 부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온·오프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된다.

참여 부문은 지역화합 및 특색 연계 시민참여 프로그램 또는 관광객 대상 이색체험 등 흥미 유발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오는 12월 중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 후 수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부문별 최우수 1건(상금 50만원), 우수 2건(각 30만원), 장려 2건(각 20만원) 등 총 10건을 선정, 시상한다.

올해 서귀포칠십리축제는 오는 20~21일 서귀포 칠십리아외공영장에서 지 내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관광진흥과(760-3946)로 문의하면 된다.

현영중기자 yihyeon@ihalla.com

"드론산업 지원 미흡 활성화 지원책 마련"

문석환 교수 토론회서 제언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드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제주에서도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는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읍)이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해 지난달 30일 도의회 사회의실에서 강철남 의원 주최의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에 드론을 도입하고 있고 이미 드론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수립한 상태"라며 "우리 제주에서도 드론메카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는 것이나 관련 조례의 부재로 체계적 지원이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 미래전략국 윤형석 국장은 "제주도의 넓은 해양·한라산·도시·



조류독감 방역하는 드론. 지난달 31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방역당국이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을 막기 위한 드론을 이용해 방역하고 있다.

농경지의 환경·안전 모니터링은 드론뿐이나 드론 상용화 서비스는 각종 드론 규제로 막혀 있는 실정"이라며 제도 마련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한국드론기업연합회 송재근 회장도 "제주도가 '드론 샌드박스'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위상이 점차 상승하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 인력, 산업체 확보 및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에서도 드론산업의 확대를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라대 문석환 교수는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드론산업육성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에 의한 체계적 지원과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드론산업 생태계의 기반인 기술인력 양성과 지속성장 가능한 인력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망라하는 중장기적 드론산업 인재양성 프로그램 제정을 통해 제주에서도 드론산업의 확대를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 계약제도)으로 지역기업의 기술 생존능력을 확보하고 향토기업 및 창업기업 우대 드론 R&D 보조금 지원 시책(매칭펀드) 추진 등 지역드론기업 지원시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이임평 교수는 "드론 활용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실무부서의 드론 공간정보의 활용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사례를 통해 제주에서 다양한 도정업무에 드론 도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온라인서 여권 재발급 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여권 재발급을 민원창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시행 이전에는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총 2회 민원창구에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에는 수령할 때만 민원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http://www.go.kr), 국외인 경우에는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생애 최초(신규) 전자여권 신청자,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병역 미필자(대상의 경우), 외교관·관공·김남여권 신청자 등은 직접 방문에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서비스 특성상 민원인 본인 이 직접 여권사진 파일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함에 따라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이태운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조정
석회효과

높은 저장성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코코리비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PAA, 바실러스, 효소당밀, 펄빅산, PGA, 약스바실러스, 발근제

NAVER DU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21세기 최첨단 비료 → 히토류가 들어있는 "이노페스" 탄생



이노페스

특징

- ☆가스피해가 없다
- ☆시비가 간편하며 시간과 인건비 절약

이노페스 성분

원료명	효과
히토류	염류중화·토양개량·천연항균 작용
식이유황(MSM)	천연항균 작용
부식산	유기물 대체·토양개량
벤토나이트	토양개량
고삼·백합추출물	토양해중기피
아미노산	천연질소질 공급
미량요소(Mg, B, Mo, Cu, Fe, Mn, Zn)	필수 미량요소 공급

☆염류중화로 뿌리생육 발달

☆히토류 첨가로 작물의 기작 조절

신진대사 촉진

내병성 강화

사용방법

작목	사용량	작목	사용량
키위	20~25	노지작물	10~12
만감류	20~25	하우스 감귤	15~20

* 다른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